



# 마커스 사이먼

## 53지구 주의원 후보 (민주당)

버지니아는 메디케이드 확대적용을 위해 연방 기금을 사용해야 합니까?

예. (상세의견 없음)

버지니아는 18세 미만의 모든 청소년에게,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합니까?

예. (상세의견 없음)

주/지역 경찰이 287g 조약에 사인함으로써 이민국단속반의 역할을 대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아니오. (상세의견 없음)

운전시험을 통과한 적절한 나이의 모든 개인에게,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을 허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2016년에 이에 관련된 법안을 입안한 바 있습니다.

협조적인 범죄 피해자와 증인들을 경찰의 상시적인 이민신분 확인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정책에 찬성하십니까?

예. (상세의견 없음)

버지니아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불로 인상해야 할까요?

예. 저는 이 법안을 상정한 최초의 버지니아 주 의원입니다.

버지니아는 "노조결성 제한 및 금지" 법을 폐지해야 할까요?

예. (상세의견 없음)

버지니아는 소득세 과세 적용대상을 새로 만들어야 할까요?

예. (상세의견 없음)

버지니아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확대해야 합니까?

예. (상세의견 없음)





# 마커스 사이먼

53지구 주의원 후보 (민주당)

버지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 모두에게,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대학 진학시 주내 학비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상세의견 없음)

학생들이 경제부담 없이 대학을 진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버지니아내 학비 용자 관할기관을 재조정하기 위한 법안과 채무자 권리장전을 만들기 위한 법안을 이미 상정한 바 있습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주민들이 주 정부문서를 좀더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단계적 해결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페이팩스에서 현재 시행중인 것과 같이 주와 지방정부 문서의 번역본이 의무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가 아무 이유없이도 부재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 (상세의견 없음)

\*사진은 의원 페이스북에서 전제

